

실업·취포자 속출…고용 시장 코로나19 충격 여전

지난달 실업자 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구직 단념자’ 등이 포함된 비경제활동인구(만 15세 이상 중 노동할 능력·의사가 없는 사람)도 통계 작성 아래 가장 많았다.

8월 장마 피해가 대면 서비스업이나 건설업에 본격적으로 반영될 경우 고용 지표는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7월 고용 동향” 브리핑을 열고 “지난달 실업자 수가 113만8000명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전년 동월 대비 4만1000명 증가한 수치이다. 외환 위기 여파가 재가지지 않았던 지난 1999년 7월(147만6000명) 이후 가장 많다.

고용 동향이 계절성 등을 고려해 매년 같은 달과 비교하는 것을 감안하면 무려 21년 만에 가장 좋지 않은 성적표를 들었다.

7월에는 실업률도 4.0%까지 올라 1999년 7월(6.7%) 이후 가장 높다.

다만 실업률은 2000년 7월에도 4.0%까지 오른 바 있다.

15~29세 청년층의 고용 상황이 특히 나빴다.

7월 청년층 취업자 수는 380만

7월 고용 동향 실업자 수 외환 위기 이후 최고

실업률도 비슷한 상황…청년층 상황 특히 나빠

구직 단념자·쉬었음 등 비경제활동인구도 최대

2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만 5000명 감소했다.

올해 2월부터 6개월 연속 내리막이다.

청년층 고용률도 42.7%에 그쳐 2015년 7월(42.1%) 이후 가장 저조하다.

청년층 실업률은 9.7%로 2018년 7월(9.3%) 이후 가장 높다.

이와 관련해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대 후반 취업자 수가 감소세로 전환됐고, 이 추세는 20대 전반으로 확대됐다”면서 “그러다가 20대 전·후반에 유사한 규모로 감소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청년층인 대면 서비스업 상황이 아직 좋지 않아서 (고용 상황이 저조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7월 비경제활동인구 수는 1655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0만 2000명 증가했다.

통계청도 비슷한 평가를 내놨다.

이 증가 폭은 1996년 6월 관련 기준이 변경된 아래 7월 기준 최고 치다.

비경제활동인구에는 구직 단념자와 ‘쉬었음’ 인구가 포함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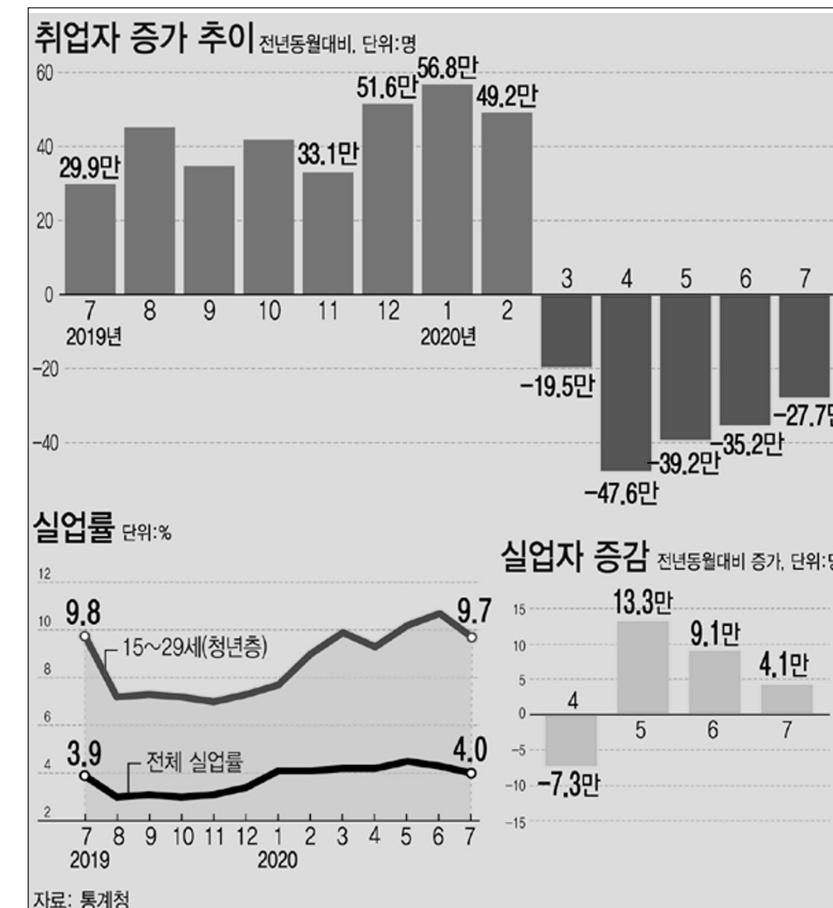
구직 단념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5만5000명 증가한 58만명, 쉬었음 인구 수는 22만5000명 증가한 231만9000명이다.

이는 전반적으로 코로나19의 악영향이 국에 이르렀던 6월 대비 소폭 나아진 수준이다.

당시 실업자 수는 122만8000명, 실업률은 4.3%까지 치솟았다.

기획재정부도 7월 고용 동향에 관해 “4월 마이너스(-) 1.4%였던 고용률이 5월 -1.3%, 6월 -1.3%, 7월 -1.0%로 하락 폭을 줄어드는 등 코로나19의 충격에서 회복하는 모양새”라고 평가했다.

통계청도 비슷한 평가를 내놨다.



다면 고용 상황의 개선을 기대하기는 아직 이르다.

역대 최장 기간 기록을 갈아치운 장마 때문이다.

6월 24일 시작된 장마는 8월 중순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통계청의 고용 동향은 1주일에 1시간만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도 취업자로 간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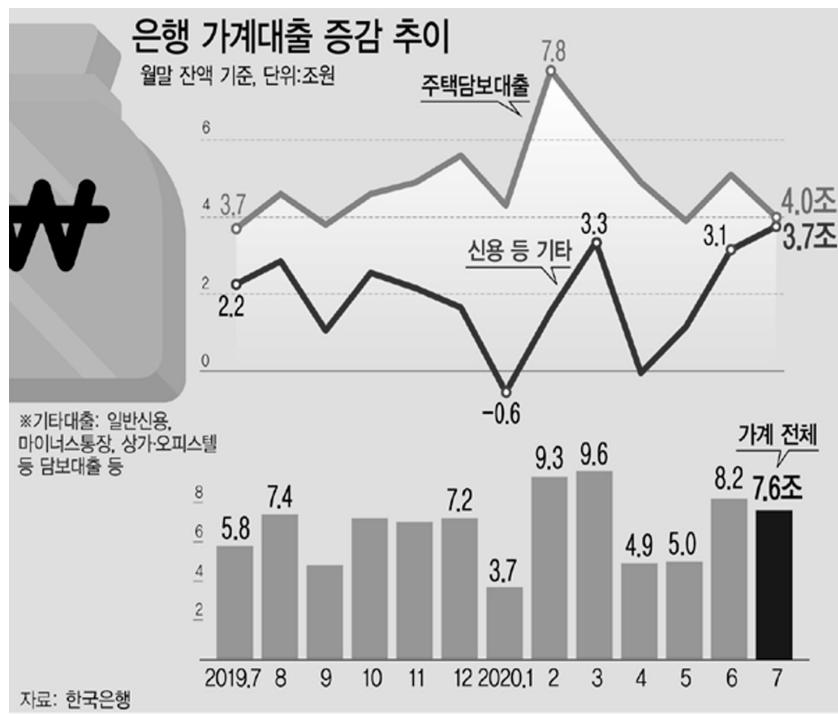
잦은 강우는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쓰는 대면 서비스업 악화를 부채질할 우려가 있다.

일용직 근로자를 대거 채용하고 기상 영향을 많이 받는 건설업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작전(2013년) 최장기 장마의 종간 기간인 7월 실업자 수는 82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만4000명 증가했다. 8월에도 실업자 수는 1만3000명 늘었다.

이와 관련해 임용빈 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 연구원은 “7월 고용 동향은 장마 피해가 그려 크지 않았던 15일을 중심으로 조사됐다”면서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만드는 공공 일자리 효과가 대폭 반영되지 않는 한 8월 고용 동향은 ‘고용 상황이 나아졌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예측했다.

신봉우 기자



집값 이어 전셋값 뛴다…

7월 가계대출 ‘역대 최대’ 폭증

은행 가계대출 7.6조 증가

‘집값 상승’ 등 매매 거래↑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이 역대 7월중 가장 큰 폭 증가했다. 치솟는 집값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 ‘페닉 바잉(panic buying)’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셋값까지 폭등하자 대출 수요가 급격히 불린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7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은행 가계대출은 936조 5000억원으로 전월대비 7조 6000억원 증가했다. 한은이 2004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7월 증가액 기준으로 역대 최대폭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잠정화면에 집값이 다시 급등하기 시작한 지난 6월 증가 규모(8조 2000억원)보다는 다소 축소됐지만, 정부의 거듭된 ‘집값 안정’ 대책이 무색할 만큼 고공행진세를 이어간 것이다.

은행 주택담보대출은 전월대비 4조원 증가했고,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3조 7000억원 늘어났다. 집단대출 둔화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은 전월(5조 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주춤해졌지만, 기타대출은 전월(3조 1000억원)보다 가팔라졌다. 기타대출 증가 규모는 역대 7월 중 최대치였다.

증가세가 꺾였던 기업대출도 지난달 다시 크게 늘었다. 대기업대출은 분기별 일시상환분 차취금 등의 영향으로 1조 9000억원 늘었다.

윤옥자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

역대급 장마, 에어컨 지고 제습기 뜬다

폭염 전망에 에어컨 판매증가 예상됐지만 긴 장마에 제습기·건조기 등 특수



올 여름 역대급으로 긴 장마가 지속되면서 에어컨이 지고 제습기 전이 뜨고 있다.

길어진 장마로 무더위가 밀려나면서 에어컨 판매가 줄어든 반면에 농수함을 없애주는 제습기와 건조기, 스타일리·에어드레서 등의 의류관리기는 유례없는 특수를 누리고 있는 모습이다. 이른바 ‘장마가 전’의 특수 호황이다.

12일 이마트에 따르면, 지난 7월 에어컨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1.7% 감소했다.

전자랜드에서도 지난달 에어컨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33% 줄었다.

온라인 마켓에서는 에어컨 매출이 더 줄었다.

G마켓의 경우 7월 에어컨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5%를 기록했다. 벽걸이형보다 가격이 비싼 스탠드형 판매는 81% 급감했다.

통상적으로 에어컨 판매는 5월부터 서서히 늘다가 6, 7월에 최종 정을 맞는다.

더울수록 잘 팔리기 때문이다.

실제 에어컨 시장은 2017년 250만 대에 달하는 사상 최고수준의 판매량을 기록한 이후 2018년과 2019년까지 3년으로 연속 가전업체 협회는 전년 대비 121% 늘었다. 이 가운데 제습기 매출은 전년 대비 150% 증가했으며, 건조기와 의류관리기는 각각 105%, 108% 늘었다.

홈쇼핑에서도 제습기는 인기 물

이 중이다. 신일전자가 지난 6월 롯데홈쇼핑에서 진행한 23L 대용량 제습기 기획전에서는 준비한 물

량 2700대가 43분만에 완판된 것으

로 알려졌다.

위니아딤채 관계자는 “2014년부

터 마른 장마로 제습기 판매량이 줄

었는데, 올해는 장마가 길어져 예년보다는 많이 팔렸다”고 밝혔다.

의류관리기의 경우 코로나19, 미세먼지 등으로 위생 관리가 가능한 제품 수요가 늘어난 데다 장마 기간 옷 건조는 물론 공간 제습도 할 수 있어 판매량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의류건조기는 정부의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으뜸효율 사업) 품목에 건조기가 새롭게 포함되면서 수요가 늘어난 상황에서 ‘장마 가전’으로 주목받아 특수를 누리게 됐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구매비용의 10% 환급을 해주는 으뜸효율 사업 품목에 의류건조기가 포함되면서 판매가 크게 늘었다”며 “장마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제습기 가전의 판매가 크게 늘었지만, 가격대가 높은 에어컨의 매출을 메우기엔 역부족이어서 가전 업계 표정은 밝지 않다.

올 상반기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언택트) 소비가 확산하면서 가전과 PC·노트북 등의 판매 증가로 호실적을 냈던 대형 가전 유통업체와 삼성전자·LG전자 등의 대기업 가전부문에서는 우려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이에 가전업체는 장마 이후 오래 될 무더위에 마지막 희망을 거는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에어컨 판매는 예년만큼은 아닐 수 있다. 8월도 지나고 있다”며 “올해는 열대야가 아직 안왔는데 장마가 지나면 좋을 것 같다”고 전했다.

김민정 기자

전남도, 집중호우 피해 中企 금융지원

전남도는 정부와 함께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금융 지원에 들어갔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10억 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금리 1.9%로 지원하고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7000만 원까지 금리 2.0%(특별재난지역 1.5%)로 융자 지원키로 했다. 또 특례보증을 확대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전통시장의 초기 정상화를 위해 자자체, 유관기관 등과 함께 긴급 지원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장마 기간 기록적인 폭우로 11일 기준 전국 30개 전통시장에서 크고 작은 수해가 발생했다. 하천 범람으로 피해가 큰 경남 하동의 화개장터와 전남 구례의 구례 5일장 등 4곳을 제외한 26개 전통시장은 긴급 복구가 완료돼 영업을 재개했다.

중기부는 피해 전통시장에 시설 복구를 비롯해 금융, 운영자금 등 지원을 하고 있다.

우선 피해 복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재해소상공인 특례보증이 지원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은 융자금리 인하(2.0→1.5%), 상황기간 연장(2년거치 3년상환→3년거치 4년상환), 특례보증 한도 확대(7천만원→2억원), 특례보증비율 상향(85%→100%), 보증료